

‘마닷 빚투’, 20년 만의 후속보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천지역 낙농가 도산위기

보증섰던 낙농업자 부도 연쇄파산 우려

사료비 지원·자금회수 유예등 지원대책 요구

최근들어 IMF 한파속에서 낙농가들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잇따른 연쇄파산마저 예상돼 당국의 긴급지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제천지역의 경우에도 낙농가들이 사료비 상승 및 원유 판매 부진과 더불어 도산한 낙농업자의 잠적으로 인해 보증을 선 낙농가들에게 연체타리의 조짐을 드러내는 등 낙농가들이 전 체계적으로 도산할 우려마저 높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낙농가들을 위해 시에서 사료비 지원과 회수자금의 유예 등 긴급 수혈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1일 송학면 무도리 낙농가 신모씨(41)가 원유 대금유체대로 받지 못하면서 사료비 상승에 따른 부채해결이 어려워지자 췌소 85두와 트랙터까지 처분하고 잠적해 버렸다.

더욱이 신씨의 부도로 보증을 서렸던 낙농가들은 가축이나 자산들이 빚만정부지원금의 이자에 원리금 상환마저 해야하는 상황에서 신씨의 정부지원자금회수에 따른 부담마저 겹치는 등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역 낙농가들은 지난해 시정을 찾아 시와 신씨의 정부 지원자금이 회수유예등을 요구하며 시가 긴급 대책을 세워줄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들은 「인근 충주시에서도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2억원 가량의 배합사료를 특별지원해준 바 있다」고 전제, 「부도난 신씨가 용자해 쓴 정책자금의 회수를 연기해 취약한 보증선낙농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관제 낙농가들의 도산을 막으려면 우선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해 신씨가 벌리는 자금을 보증선 낙농가들이 갚을수 있도록 우선 도와줘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지난주 충북도에서 도산후 잠적한 낙농인의 현지실태를 조사해 갔다며 「도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처리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병철 / 제천

중부매일 1998년 6월24일 자 8면에 보도된 기사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슈는 이내 잠잠해진다. 기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단물 빠진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만 회자될 뿐이다. 과정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다.

기자가 취재를 하다 보면 가끔 ‘일’로서의 취재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경우가 있다. 효율은 떨어지고, 품도 많이 들지만 이런 취재가 기자로서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한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이하 마닷 빚투사건)’은 나에게 그런 사건 중 하나다.

첫 만남은 나를 운명적이었다. 2018년 11월 한 매체에서 마닷 부모 빚투 의혹을 처음 보도하면서 중부매일의 1998년 6월 24일 자 8면에 보도된 ‘제천지역 낙농가 도산위기’ 기사를 인용했다. 인용된 기사를 쓴 기자는 아직 현직에 있는 회사 선배였다. 그길로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선배는 취재수첩을 펼쳐놓고 읽는 듯 세밀하게 사건을 설명했다.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던 만큼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당시 지면보도와 취재기자의 증언, 경찰 대응 등을 토대로 2018년 11월

21일 자 1면에 ‘마이크로닷 부친 20억 사기 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20년 5개월 만의 후속보도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슈생산의 호재를 맞은 신문사는 당연히 추가보도를 준비했다.

중앙언론 등에서 쏟아지는 기사와의 차별화가 필요했던 나는 단독 인터뷰를 준비했다. 20년 전 첫 보도를 했던 선배기자가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씨, 가장 큰 피해를 본 고교 동창생과 친구 사이였던 점을 노렸다. 지역신문만이 가질 수 있는 섭외력이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마음을 열어주었다. 두 피해자를 대상으

로 한 인터뷰 시간은 1시간 30여 분. 인터뷰는 거칠었지만 솔직했다. 그리고 아팠다.

이들과의 인터뷰는 기사화됐다. 피해자들은 때론 욕을 섞은 말로 가해자들을 비난했고, 때론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렸다. 중부매일은 더욱 생생한 전달을 위해 기사 외에 인터뷰 전문을 텍스트로 공개했다. 가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외침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우리 딸은 학원 한번 못 가보고 컸다”며 울부짖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마이크로닷 친형 산체스와 피해자 자녀들 사진



기사가 보도된 후 모든 언론에서 인터뷰 기사를 받아췄다. 대형포털의 횡포로 지역신문사 기자가 쓴 기사는 메인페이지에 오르지 못했지만 ‘중부매일에 따르면’으로 인용된 중앙언론 기사가 포털 메인에 자리했다. 나름의 성과에 만족했다.

지금에서야 밝히지만 지면보도보다 하루 먼저 나간 인터넷 보도에는 우리 회사의 실수가 있었다. 신문사 데스크 프로그램에 내용 혼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실명을 적어놓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미디어부가 해당 기사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실명을 부제목에 달았다. 기사가 올라간 직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항의전화가 왔다. 기사는 바로 수정됐지만 “당신을 믿었는데,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하나”는 질타가 쏟아졌다.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 너무나 죄송했다. 좀 더 솔직해지면 후속취재에 대한 연결의 끈을 놓칠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다행히 피해자 가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췄다.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가 한 걸음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하루를 보내고 며칠이 흘렀다. 언론의 관심 때문인지 경찰의 대응은 빨랐다. 마닷 부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멈췄던 수사도 다시 시작됐다. 마닷은 인기 예능프로에서 하차했다.

이즈음 나는 마닷 이모 단독 인터뷰로 다시 한번 이슈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다. 치료비 도움을 얻기 위해 어렵게 뉴질랜드를 찾았지만 무일푼으로 돌아왔던 사연, 공항에서 마닷 가족과 함께 찍었던 사진 등 흔적을 지우기 위해 조카가 이모의 폰을 포맷한 행위는 공분을 샀다. 2018년 11월28일 자로 나간 이 인터뷰는 앞선 피해자들의 인터뷰만큼 파급력이 컸다.

연이은 단독보도가 터지고 나니 마닷 빚투 이슈를 중부매일이, 그리고 담당기자인 내가 선점하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뒤처질 수 없는, 뒤쳐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 됐다.

보름여간 쓰나미 같았던 빚투사건 이슈가 지나고, 달(2018년 12월)이 바뀌었다. 사건은 단물이 빠지면서 잠잠하게 흘러갔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건들로 옮겨갔다. 중부매일 지면 메인기사 역시 마닷 빚투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마닷 부모

신씨와 김씨가 국내로 송환돼 법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을 놓을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걸려오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피할 길은 없었다. 아니 피해봤지만 째짢했다. 혹시나 기사거리가 될까 하는 호기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지켜온 취재원(피해자들)과의 관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효과를 봤다. 해가 지난 2019년 1월 신씨 부부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썼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고서는 뉴질랜드에서도 피생활을 하고 있는 신씨 부부가 국내 한 회사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는 일부 매체에 인용되며 소소한 인기를 끌었다. 파괴력은 없었다. 돌이켜보면 이때의 기사는 독자를 겨냥한 측면보다는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이었다. 사회부 기사를 하면서 사건발생 이후 사법처리 절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 속에서 이 시간을 견딘다.

언론과 독자, 피해자들이 모두 지켜갈 때쯤 신씨 부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입국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2019년 4월 8일 나는 제천경찰서에서 신씨 부부를 기다렸다. 이날 오후 10시 37분께 이들을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치열한 보도경쟁이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순간이다.

다음 날부터 시골 경찰서 앞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경찰서에 누가 찾아왔는지부터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보도됐다. 나 역시 주재기자 선배와 소통하며 경쟁력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했다. 수사를 담당할 경제팀장에게는 매일같이 안부 인사를 전했고, 친분이 있었던 제천경찰서장에게는 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통한 취재도 잊지 않았다.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른 기자보다 하루 아니 한 시간 먼저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된 신씨 부부가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알고, 다른 기자보다 한 글자 더 쓰기 위해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단독기사는 이런 꾸준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자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될 때도 있다. 신씨 부부가 제천경찰서로 압송된 이후 8일간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나는 단독 기사를 쓰지 못했다. 다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제천경찰서장에게 “기자들한테 정말 많이 시달렸는데 그중 1등은 당신이었다”는リップ서비스를 받았다.

빛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본게임’이 시작됐다. 법리적 공방으로 신씨 부부의 쫓값을 받아낼 시

간이 온 것이다.

검찰은 신씨 부부가 20여 년 전 지인들로부터 4억여 원을 빌린 후 해외로 도피한 혐의(사기)로 기소했고 이를 입증하는 재판과정은 치열했다. ‘억’ 소리 나는 유명로펌 변호사를 고용한 신씨 부부 측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죄를 숨겼다. 그 과정에서 아들 마당은 피해자들과 만나 녹취를 따기도 했다. 법원에 제출할 유리한 증거(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이 거절한 상황)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꼼수는 우연이 겹치며

세상에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마닷 일행의 대화를 들었다. “쓸 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 마닷과 그의 지인이 나누는 대화는 여과 없이 나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기사가 됐다.

이처럼 각종 꼼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쌓여왔던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은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후 검찰과 신씨 부부 측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신씨 부부 측은 1심을 맡았던 서울의 유명로펌 대신 청주지역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다.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일명 ‘전관’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로펌이었다. 씩씩했다. 변호사 살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신씨 부부 측은 다양한 술책을 써가며 형을 낮추려 했다. 전관 변호사가 있는 로펌다운 노련함이 느껴졌다. “자신의 친형에게 돈을 남기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마닷 모친 김씨

갔지만 형이 이 돈을 전달해주지 않은 것 같다”며 가족을 판 것도 모자라서,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형사공탁 제도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적당한 금액을 맡기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줌으로써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기재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신씨 부부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일반인들은 이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라는 오판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하지만 빚투사건을 겪으며 법률지식을 축적해왔던 A씨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고, 나는 취재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줬다.

신씨 부부 측이 불법임을 알고서도 이런 일을 벌인 데에는 나름 사정이 있었다. 마닷 모친인 김씨는 A씨에게만 채무가 있다. A씨와 합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면, 김씨는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천만원의 돈보다는 진정한 사죄를 원했던 A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자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반성 없이 형량만 줄이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예상치 못한 A씨의 대응으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신씨 부부 측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A씨에게 공색한 연락을 한다. 신씨 부부 측은 “기존 피해원금인 2천500만원을 형사공탁으로 걸어놨는데, 여기서 추가로 1천200만원을 더 걸었으니

진정서만 취하해 달라”고 요청한다. A씨는 이 제안을 거절한다.

돈이 한 푼도 없어 아들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신씨 부부는 2~3일 만에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똑딱 만들어냈다. 전국적으로 사기꾼으로 찍힌 탓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통장에 18만원밖에 없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머리를 스쳐갔다.

결국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신씨 부부 측은 2020년 4월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결국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는다. 준엄한 재판부에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에 가서도 감형은 어렵다고 판단한 신씨 부부 측은 같은 달 29일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20년을 끌어난 사건은 이들의 파렴치한 사기행각으로 결론 났다.

항소심 선고가 끝나고 피해자들은 함께 재판정을 나왔다. 나는 피해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했다. 피해자들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내 두 손을 꼭 잡았다. 1년 6개월간 취재를 이어간 마닷 빚투사건은 과정과 결과 모두 명확한 채로 끝이 났다. 🙏